

동신대 군사학과, 장교 선발시험 전원 합격 ‘화제’

졸업생 8년 연속…1학년 평균 3.61개 장교과정 선발
12기수 100% 합격…인성·체계적 교육 시스템 성과

동신대학교 군사학과 2025학년도 신입생 전원이 장교 선발 시험에 합격하면서 2014년 학과 개설 이래 12년 연속 제 학생 100% 장교 시험 합격의 신화를 써 내려가 화제다.

동신대 군사학과는 4월 2~4학년 재학생이 지난해까지 전원 장교 선발시험에 합격한 데 이어, 2025학년도에 입학한 1학년(12기) 25명이 79개의 장교과정에 합격했다고 밝혔다.

특히 2025학년도 신입생들은 1인 평균 3.61개의 장교과정에 합격하는 대기록을 세워 주목받고 있다.

동신대 군사학과는 졸업생 기준으로는 8년 연속, 재학생 기준 기수로는 12개 기수 연속 장교 선발 시험 100% 합격률을 달성했으며, 2014년 학과 출범 이후 223명의 육·해·공군 및 해병대 장교를 골고루 배출한 명문 학과로서 명성을 이어오고 있다. 이같은 성과는 전국에서 유일무이한 실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026년 2월에 졸업을 앞둔 9기는 30명 중 25명의 육군 ROTC장교 임관이 확정됐으며 이외 5명(해군 1명, 공군 2명, 해병대 2명)은 오는 3월에 장교후보생 양성과정에 입영해 3월부터 6월까지



동신대 군사학과는 4월 2~4학년 재학생이 지난해까지 전원 장교 선발시험에 합격한 데 이어, 2025학년도에 입학한 1학년(12기) 25명이 79개의 장교과정에 합격했다.

훈련 후 소위로 임관될 예정이다.

이처럼 탁월한 성과의 비결로는 인성 교육과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이 꼽힌다.

동신대는 재학생들이 엘리트 군사 장교로 거듭날 수 있도록 탄탄한 교육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입학과 동시에 기숙사 생활을 통한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형성하고, 최첨단 체력단련시설을 활용한 규칙적인 체력 훈련 과정을 지원한다.

지도교수와 전문상담사를 통한 학생상담을 의무화하고 주기적인 성격검사, 표준화 성격진단 검사, 인성검사, 진로·적성검사를 통해 개인별 능력을 분석해 맞춤형 교육, 인성 함양, 방과 후 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 졸업생 선배들의 밀착 특강과 재학생들의 원활한 필기 및 면접을 지원하는 1대1 멘토 프로그램 등 교수진과 선배배 간의 긴밀한 교류를 통해 실질적인 진로 설계와 학습 효과를 높이고 있는 점도 강점으로 꼽힌다. 좋은 인성과 능력, 체력을 겸비한 엘리트 군사 인재로 성장시키는 총체적 시스템으로 재학생들의 만족

도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학시절 멀티형 장교로 성장한 졸업생들이 임관 이후 각종 훈련 과정에서 뛰어난 능력을 인정받아 육군 학사 장교 수석 임관(대통령 표창), 해병대 장교 수석 임관(국방부 장관상), 육군 기계화학교 수석 수료(기계화학교장 표창), 육군 공병학교 수석 수료(공병 학교장상), 육군 학군장교(임관 1등 육군학군교장상) 등의 성과를 거두며 동신대 군사학과와 명성을 날리고 있다.

류태웅 군사학과장은 “그동안의 성과는 전문적인 군사교육과 최우선 교수진, 최적의 시설 그리고 재학생들의 노력이 더해져 가능했던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재학생들이 엘리트 군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joinsu@gwangnam.co.kr

곡성축협, 곡성군미래교육재단에 500만원 기탁

인재 육성 가치 공감

곡성군미래교육재단은 최근 곡성축산업협동조합에서 재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교육 발전을 위한 기탁금 500만원을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전달된 기탁금은 지역 인재 육성과 교육 복지 향상에 힘을 보태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으며 지역 학생들의 성장을 위한 교육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재단은 기부자가 지정한 목적사업에 기부금을 사용하고 있으며, 장학금 지원, 지역자원 연계 곡성형 창의교육, 4차 산업 대응 창의융합교육, 아동·청소년 문화예술 교육, 청소년 자기주도 활동 지원, 진로탐색 지원, 평생교육사업 등에 지정 기부가 가능하다.



곡성군미래교육재단은 최근 곡성축산업협동조합에서 재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교육 발전을 위한 기탁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김형호 곡성축산업협동조합장은 “곡성군의 미래 인재들이 꿈과 희망을 세울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과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조상래 곡성군미래교육재단 이사장은 “어려운 시기에도 연이은 기탁에 감사하다”며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곡성=김유빈 기자 hnnews1@gwangnam.co.kr

광주 서구의회, 설 맞이 이웃 사랑 ‘훈훈’

소외이웃에 휴지·라면 등 생필품 전달

광주 서구의회는 최근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등 어려운 이웃에게 온정의 손길을 전했다.

서구의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이웃사랑

실천의 뜻을 담아 라면, 휴지 등 생필품과 제철 과일 등을 취약계층에 전달했다.

전승일 서구의회 의장은“설 명절을 맞아 소외된 이웃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작은 힘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주변에 소외된 이웃이 없는지 살피면서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의 복지 증진과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서구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 서구의회는 매년 명절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위문품을 전달하며 이웃사랑 실천과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이산하 기자 goback@

광주북구새마을회, 이주여성과 ‘사랑의 떡국떡 나눔’

원유진씨 쌀 200kg 기증

복지관 3개소에 전달

광주시북구새마을회(회장 이문영)는 지난 3일 북구새마을회 회의실에서 베트남 출신 이주여성 원유진씨가 기증한 쌀로 만든 ‘사랑의 떡국떡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나눔은 원유진씨가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 및 북구 주민들과 온정을 나누고 싶다는 기탁한 쌀 200kg을 바탕으로 정성을 담아 떡국떡으로 가공, 북구 지역 내 복지관 3개소에 전달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행사는 타국에서 온 이주여성 이 지역사회에 구성원으로서 나눔의 주체



광주시북구새마을회는 지난 3일 북구새마을회 회의실에서 베트남 출신 이주여성 원유진씨가 기증한 쌀로 만든 ‘사랑의 떡국떡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가 됐다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를 갖는다.

이문영 북구새마을회 회장은 “소중한 기부 덕분에 지역사회가 한층 더 따뜻해졌

다”며 “기탁자의 진심이 이웃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최기남 기자 bluesky@

게시판

알림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비영리민간단체 노후를 돕는 사람들 노후생애를 위한 무료교육=50세 이상 중장년층 남녀 15기 모집 주 3일(월·수·금) 1월 2시간씩 6개월간 진행. 영여, 심리상담, 생애설계, 노래, 댄스, 명상보통 등 진행. 062-223-1357. ▲사랑마루협동조합 사회적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장려서비스=기초생활 수급자, 조손가정,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3급 이상) 장의입관용품·장례지도사무료 지원 062-369-4009. ▲이동일시보호 상담=미혼부모아동·결손가정아동·경제적 사정·아동 학대 등 양육환경에 어려움 있는 3세 미만의 아동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입소 상담.

모집 ▲구당침·뜸 수강생=가죽건강관리, 노후 건강을 위해 ‘배워서 남주자’란 모토로 구당침·뜸 수강생 모집. 관심있으신 분 누구나 가능. 뜸사랑 광주·전남지부 문의 062-521-3999. ▲시니어물레나지도사(자격반)=시·군·구 지부모집. 한국치매예방교육원 광주전남지사 문의 010-5522-9700. ▲사회공헌활동 돌봄봉사자=어르신 돌봄봉사자 모집. 13세 이상 가능. 동구노인종합복지관 문의 062-232-4953.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 받은 대상자 ‘허그일자리’ 무료 취업 신장=취업상담·직업훈련·일자리 알선·교통비 등 취업지원. 긴급원호·속식제공·주거지원 등 자립지원 신청 접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 062-513-9936.

운세 (음력 12월 18일)

쥐 48년생 자녀나 부하직원 문제로 근심 있는 날
60년생 투기 투자는 실시간으로 체코하라
72년생 남자에게 지나친 사교를 주의하라
84년생 돈 명예도 좋지만 충분한 휴식 취하라
96년생 뜻과 맞지 않아 마음이 조급해진다
토끼 51년생 상태는 양호하므로 걱정하지 말라
63년생 지나친 경계심은 활동을 축소시킨다
75년생 성공정조가 보이나 안심하라
87년생 말이 자유롭게 놀 듯 일에서 해방된 날
99년생 탄력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말 54년생 자녀에 대해 세밀한 관심이 필요한 날
66년생 그 돈 해결되니 근심 말라
78년생 귀하가 직접 부딪혀서 해결하라
90년생 지인의 도움으로 희망이 생긴다
돼지 57년생 나의 과오를 시인하고 사과하라
69년생 보태지 말고 있는 그대로 내 보여라
81년생 한결같이 인정받게 된다
93년생 분수에 맞게 일해야 복도 따르는 법

소 49년생 주변에서 간사한 꾀로 속이고자 한다
61년생 주변사람과 이익을 나누는 운세
73년생 출중한 아이들도 허투르고 그치게 된다
85년생 일에 방해꾼이 있으니 대처하라
97년생 긍정적인 마인드로 바라보라
물고기 52년생 손해는 일은 잊고 새로운 출발하라
64년생 고생한 만큼에 비례한 대가가 주어진다
76년생 외모에 변화 주면 색다른 일이 생길 것
88년생 서로 돕는 것이 바람직하다
양 55년생 임시방편적이라면 무의미하다
67년생 처음부터 차근차근 풀어야 한다
79년생 힘든 만큼 수확의 결실도 알차겠다
91년생 경정이 예상되니 만전을 기하라
개 58년생 멀리 있지 않다 가까운 데서 찾아라
70년생 인간관계의 갈등 속에서 허덕이는 날
82년생 잘 살피지 않으면 결정적인 패인 날이다
94년생 학업에 충실하는 것이 좋다

호랑이 50년생 물만 바쁘고 뜻대로 되는 일이 없다
62년생 횡재수가 없으니 투기성 있는 일 금물
74년생 평 먹고 알 먹는 일이 보인다
86년생 이성·금전 두 가지를 다 잃을 수 있다
98년생 친구 문제로 자리에 누울 수도 있다
뱀 53년생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65년생 문서에 미련을 가지지 말 것
77년생 호기가 주어진 때 취하는 것이 좋다
89년생 고만만 하지 말고 말로 해야 한다
원숭이 56년생 만만치않은 상대가 나타나서 힘든 날
68년생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정진하라
80년생 가슴 얹어지지 말고 어른과 상의하라
92년생 명분부터 확실하게 세울 시기
돼지 59년생 빛 속속으로 삼심하게 된다
71년생 현실의 상황에 적응이 필요할 것이다
83년생 금전 유혹에 휩쓸리지 않도록 주의
95년생 어제의 지인이 오늘의 적이 된다